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May 17, 2026, 10:30 a.m.

부활절 일곱번째 주일 (Year A)

Seventh Sunday of Easter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 ..... 다같이 All Together

H246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I've Cast My Heavy Burdens Down

C1027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Draw Me Close to You

C1022 성령이 오셨네 The Holy Spirit Has Come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 ..... 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뒤돌아보기 Time to Reflect ..... 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 ..... 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 ..... 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 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 다같이 All Together

요한복음 John 17:1-11

설교 Sermon .....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Jesus' Prayer for His Disciples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 ..... 다같이 All Together

H210 시온성과 같은 교회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 ..... 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 .....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지난 주 임시 신도사무총회에서 아래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 내지 선교부 창설
        - 박영옥 권사님이 부장으로 임명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사도행전 ACTS 1:6-14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시편 PSALM 68:1-10, 32-35

1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2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3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7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8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9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10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32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33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34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35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THE SECOND LESSON 베드로 전서 1 PETER 4:12-14, 5:6-11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함께 살펴보기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마주한 시련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고난은 믿음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5 장에서 베드로는 공동체의 영적 성숙과 견고함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것을 요구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또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영적 전쟁의 실재를 경고합니다.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 대항하여, 성도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첫째, 고난의 기독교적 의미와 영광 (The Christian Meaning of Suffering and Glory)

본문은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의 필연적인 여정으로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계심을 증명하는 복된 징표입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시련은 신앙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며, 장차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신비로운 은혜의 과정입니다.

둘째, 겸손과 주권적 돌보심 (Humility and Sovereign Care)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이겨내는 핵심 영적 태도로 '겸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care) 계시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깨어 있음과 은혜의 회복 (Vigilance and the Restoration of Grace)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투 현장과 같습니다. 마귀의 대적에 맞서기 위해 공동체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연대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회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단순히 보호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히 온전케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오늘날 우리는 초대 교회와 같은 물리적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불 시험'을 마주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대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 할 때 찾아오는 불이익이나 오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며 원망하기보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는 수많은 염려와 불안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주님께 염려를 '맡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의 약한 고리, 즉 낙심과 분열, 두려움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혹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방어벽이 무너진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고난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견고케 하심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본문 이해) 사도 베드로는 왜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불 시험'은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나누어 봅시다.
2. (신앙 성찰) 내 삶 속에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적 행위를 의미할까요?
3. (공동체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 공동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1 일차 (Day 1): 염려 목록 작성과 봉헌 (Anxiety Inventory & Offering) 한 주를 시작하며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종이에 적어봅니다. 기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라고 선포하며 그 종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상징적 기도를 드립니다.

2 일차 (Day 2): 은혜의 말로 격려하기 (Encouragement in Suffering) 주변에 고난이나 시련을 겪고 있는 지체나 교우를 찾아봅니다. 판단이나 섣부른 조언 대신,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적 의미를 담아 격려의 메시지나 전화를 전합니다.

3 일차 (Day 3): 침묵과 겸손의 묵상 (Silence & Contemplating Humility) 하루 중 10 분을 구별하여 침묵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주장하던 목소리를 낮추고,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옵소서"라며 영적인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합니다.

4 일차 (Day 4): 영적 파수꾼 되기 (Spiritual Sobriety & Vigilance) 내 영을 흐리게 만들고 마귀의 유혹에 취약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미디어나 습관(과도한 염려, 미움, 중독 등)을 하루 동안 절제합니다. 말씀(베드로전서 5 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영적 깨어 있음을 유지합니다.

5 일차 (Day 5): 감사의 제단 쌓기 (Sacrifice of Praise & Thanksgiving) 아직 고난의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의 제목 5 가지를 적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모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무거운 염려와 불안을 아등바등 움켜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아래 우리 자신을 낮추며 전적으로 맡기게 하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권세 앞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세대를 이기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요한복음 JOHN 17:1-11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